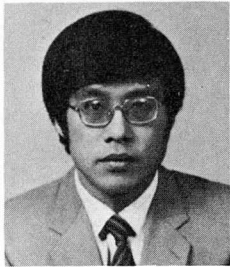


# 초과공급과 수요감소로 약보합세 지속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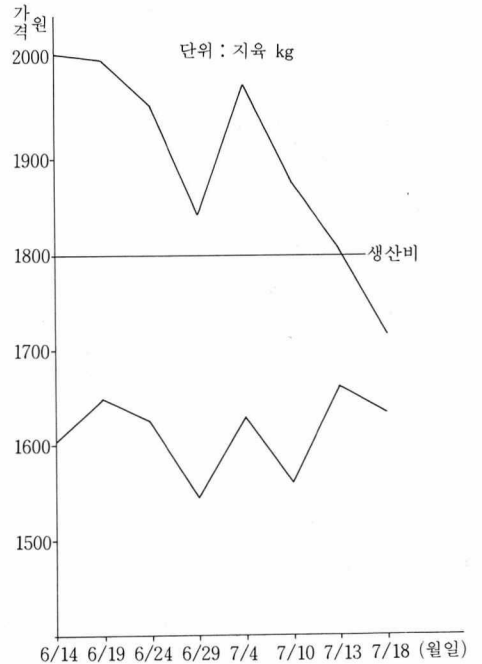
함 병 은  
(본회 지도부)

## 가격동향

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. 특히 금년 7~8월에 우리 양돈인들은 별탈없이 지낼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생각이 앞선다.

하여튼 고사라도 지내 올여름은 감기정도 들고 지나갔으면 좋겠다.

〈표1〉 서울3개도매시장의 가격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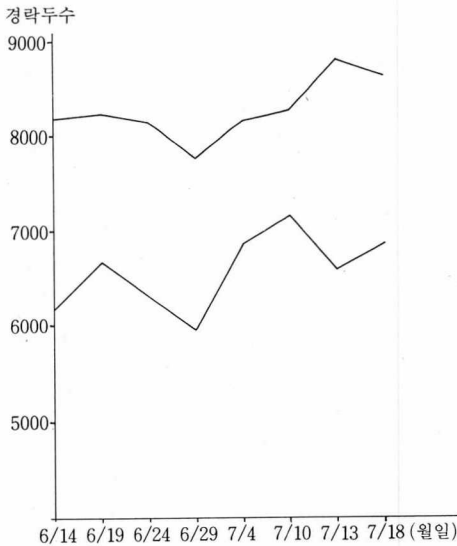


서울3개 도매시장의 6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가격등락〈표1〉을 보면, 최저 1,553원(6월 28일)에서 최고 1,664원(7월 13일)까지 가격이 형성되었고, 가격등락 110원으로 평균가격 1,607원에서 보합세가 유지되었다.

그러나 전년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보면, 대략 300~400원의 가격이 하락되었다. 특히 '89년도 생산비 1,800원과 비교하면, 지육 kg당 100원~200원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한 경락두수 변동추이〈표2〉를 보면, 일일 최저경락두수는 7,552두(6월 30일), 최고경락두수는 9,278두(7월 14일)로 평균경락두수는 8,216두이다. 전년같은 기간과 비교하면, 약 1,500두정도 더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〈표2〉 서울3개도매시장 경락두수추이



한편, 지방축산물 도매시장의 6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돼지도매시황을 살펴보면, 우선 인천지역은 최고가격 1,738원(6월 23일), 최저가격 1,578(7월 15일)이며, 평균가격은 1,643원으로 전년동기의 2,013보다 18.4%가 하락되었다. 총경락두수는 3만3천3백13두로서 전년동기보다 23.9%가 늘어났다. 대구지역을 보면, 최고가격은 1,765원(6월 19일), 최저가격은 1,599원(7월 11일)으로 1,668원의 평균가격으로 거래되었고, 전년같은 기간의 1,988원보다 16.1%가 하락된 시세를 보였다. 경락두수는 3만4천10두로 전년전보다는 29.2%가 증가되었다.

또한 부산지역 도매시장의 총경락두수는 6만6천8백1두로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19.4%가 늘어났다. 평균가격은 1,641원으로 전년같은 기간의 1,993원과 비교하면 17.7%가 떨어졌으며, 최고가격은 1,753원(6월 16일), 최저가격은 1,509(7월 18일) 기록되었다. 광주지역은 1만2천1백10두가 경락되었고,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24.3%가

증가되었다. 가격시황을 보면 최고가격은 1,570원(6월 17일), 최저가격은 1,263원(7월 14일)이며, 평균가격은 1,421원으로 전년동기의 1,656원보다 14.2%가 떨어졌다.

전국 산지성돈(90kg)과 자돈가격을 보면, 성돈가격은 최고 9만6천원(6월 17일), 최저 9만1천원(7월 18일)으로 9만3천원의 평균가격을 보였다. 자돈가격은 최고 2만5천원(6월 17일), 최저는 2만2천원으로 평균가격은 2만3천원을 나타냈다. 전년같은 기간과 비교하면, 성돈가격은 19.8%, 자돈가격은 23.3%가 하락되었다.

### 가격전망

7~8월의 돼지시세는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, 1,500원대에서 보합될 것으로 전망된다.

그 이유는 농림수산부가 집계한 '89년 6월의 사육두수중 7~8월에 출하될 6개월령 이상의 마리수가 전년같은 기간보다 12.2%가 늘어났다. 6월의 양돈사료생산량중 육성, 비육돈 사료생산량이 무려 47%가 증가되는 등 공급량이 급속하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.

반면, 수요측면을 보면 수출량은 약간 증가돼 6월말 현재 3천9백23톤이 수출되어 전년동기의 2천7백86톤보다 40.8%가 늘어났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노사분규 등으로 가계경제는 주름살이 더욱 커지고 있다. 특히 7~월은 소비가 제일 적은 계절인 동시에 과일, 수입쇠고기의 저가판매 등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침식당하고 있기 때문이다.

따라서 초과공급과 수요감소로 인하여 돼지가격은 전월과 마찬가지로 7~8월에도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이며, 모든감축 등 비상대책을 사용하지 않는한 이런 추세는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된다. **■**